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아산만 일대 초광역 생활·경제권) 건설, 육사 이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현안 해결과 선도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김 지사,尹대통령과 독대...육사 이전 등 적극 요청

대통령실 찾아 현안 해결 요청  
1시간 20분간 심도있는 논의  
대통령 지역 관심과 의지 재확인

산림자원연·국유지 맞교환 추진  
공공기관 유치·혁신도시 완성 강조  
의과대 신설 등 7개 현안 논의

충남도가 최우선 과제인 육군사관학교(육사) 충남 논산·계룡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프로스포츠의 우선선발권인 '드래프트제'를 제안하는 등 충남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월 19일 도청 프레스센

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1시간 20분 가까이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문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립 의과대 신설 등 7가지이다.

김 지사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땅을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충남도내 국유지와 맞교환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정책기획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가 생기면서 충남이 역차별을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우리에게 먼저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육사 등을 전담할 공공기관유치단도 신설한다. 아울러 흥성과 서울 45분 시대를 열었

던 서해선 KTX 직결 사업 선정, 서해선 삼교역 신설 확정 등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육사 이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육사 논산 이전 문제도 말씀드렸다.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육사 논산·계룡 이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충남은 국방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육사 이전 최적지로 꼽힌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고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계룡에는 삼군본부 자리하고, 국방과 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유관기관 30여 개가 인접해 있다.

10월 5일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 돌입을 안팎에 알렸다. 앞으로 육사 충남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20만 도민 역량을 결집한다. 또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공약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한다.

김 지사는 "지역 현안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공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도는 대통령 지역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정신문'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대한민국 선도할 것”

실·국·원 탄소중립 실천과제 보고회  
내포탄소중립도시 등 110건 논의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도 참석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0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 탄소중립 실천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민선 8기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국·원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연계한 실천과제 96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 건의 과제 14건 등 총 110건을 논의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 자유특구 육성 ▲중소기업 환경·사회·

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그린수소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친환경 토양관리 등이다.

또 ▲노동 전환 및 교육 훈련 지원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수산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장비 지원 ▲탄소중립 숲 조성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 등의 실천과제도 공유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검토·보완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건의 과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충남이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



10월 20일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원회 공식 출범 전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국회의원, 기업 대표, 관계기관장, 학계, 전문가, 일반 시

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정

책 제언 등이 이어졌다.

한편 도는 10월 6일 민선 8기 합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전과 핵심 가치, 분야별 전략 등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에 대한 미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7

## 민선8기 첫 외자유치 출장...투자협약 6건 체결한다

영국 등 4개국 5개사와 MOU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밑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 출장길에 오른다.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등을 차례로 찾아 반도체와 전기차 소재 및 부품 업체 5곳(6건)과 2억 달러 안팎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출장을 일정별로 살펴보면 김지사는 22일 영국행 비행기에 올라 런던 도착 직후 정홍근 주영국대한국

대사대리를 만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제 여건 변화, 향후 경제 전망, 국내 기업 진출 및 수출 현황 등을 듣는다.

유럽 출장 이틀째인 23일(이하 현지 시각) 첫 일정으로는 런던 템즈강변 신도시인 도크랜드를 찾아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4일 투자협약을 맺을 A사의 대표와 만나 간담회 진행한다.

반도체 진공펌프·가스처리장치를 생산 중인 A사는 도내에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업체다.

유럽 출장 4일차인 2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반도체용 희귀 고순도 산업 가스 업체인 B사와 2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26일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주벨기에 대한국대사를 만나 간담회 가진 후,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부품 업체인 C사와 투자협약을 맺는다.

같은 날 룩셈부르크에서 독일 뮌헨으로 이동한 김지사는 다음 날인 27일 전기차용 배터리팩 시스템 업체인 D사와 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프랑크푸르트로 자리를 옮긴다.

유럽 출장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반도체 진공펌프 업체인 E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귀국길에 오른다.

도 관계자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추가 및 신규 투자를 견인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4

## 충남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공모 선정 국비 100억 확보

충남도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5년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 도비 40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56억 원을 들인다.

도와 아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제품, 서비스 등의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시험장(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을 통한 인증체계 보완, 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표준 지침서(가이드북) 제작 및 기업 컨설팅 제공 ▲산업 데이터, 인공지능 제품 품질·안전성 검증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산업육성과 041-635-2923

## 가을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시동’

예산 사과농가 등 찾아 수확 작업을

충남도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한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가을철 본격 수확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 도움

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가장 먼저 일손돕기에 나선 농림축산국 소속 공무원 30명은 10월 20일 예산군 오기면 사과농가와 청양군 구기자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날 직원들은 구기자와 엔비사와 수확, 반사필름 제거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촌일손돕기 활동은 11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도는 올해 ‘일손돕기 한번 더 하기 운동’ 전개와 자연재해 피해농가 복구 지원 등 현재까지 2599농가에 2만 3224명이 힘을 보탰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 일손 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2

## “내포신도시에 투자 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가

본사 대상 투자 제안·홍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20일부터 22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주최해 열리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부스 운영 및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창업 박람회에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투자 상담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내포신도시

투자 제안 및 홍보영상 송출, 홍보물 배포 등 내포신도시가 투자를 위한 최적의임을 알렸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올해 말 3만여 명을 넘어선 뒤 공동주택 준공 및 건설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4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 감소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2852



## 귀어인 꿈 키우러 전국서 모였다

제7기 충남 귀어학교 입학식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0월 17일 연구소 내 충남 귀어학교에서 교육생 및 귀어학교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귀어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

교육생은 충남 7명을 비롯해 경기 10명, 인천 1명, 강원 1명, 세종 1명, 대전 1명, 전북 2명, 대구 1명 등 전국에서 총 24명을 모집했다.

제7기 귀어학교는 11월 11일까지 수산업 관련 기초교육 등 이론과 어촌살이 체험 등 체류형 현장실습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론교육은 귀어귀촌 사례와 귀어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 안내, 선배 어업인 여촌정착과정, 어선거래시스템 안내, 어업·양식업·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 위주로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서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서산 중왕어촌계에서 어선·양식장 현장 체류형 실습인 어촌살이캠프를 준비했다.

귀어학교 수료자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4

# ‘국방혁신 4.0’ 충남이 이끈다

###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 4차 산업기술 기반 첨단전력 운용

충남도는 10월 19일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함께 ‘2022년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 국방산업의 현황을 살피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국방혁신 4.0은 충남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기초연설,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기초연설로 ‘국방혁신 4.0’을 설명하며 국방혁신 4.0의 필요성, 기초, 개념 등을 설명했다.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운용하고 국방 연구개발·전력 증강 체계, 국방과학기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등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개조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4번째 국방 계획이다.

이어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이 ‘지능형 로봇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발전 방향’을, 박인수 육군교육사령부 드로봇센터 총괄이 ‘국내의 드론봇 활용 현황 및 충남 협력 방안’을, 박상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이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미래 전투 훈련 체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 로봇의 미래와 충남 국방 로봇산업 발전 방향, 첨단국방산업 육성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국방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 지역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전국 최초 국방산단인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대한민국



국방산업 전문가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육성하고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과 연계해 국방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정부에 제안, 이듬해 후보지로 선정됐고 2020년 예

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산업 협력지구 조성을 위해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역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성장과 041-635-3963

# 계룡군문화엑스포 인기...대한민국 국방력 확인했다

###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당초 목표 관람객 131만 넘겨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개최

### 계룡대 활주로서 첨단 무기 전시 헬기타고 총 쏘며 군사훈련 체험 세계 군문화 체험, 군악·의장콘서트

전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軍)의 가치를 공유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큰 호응을 얻었다. 군문화엑스포 관람객은 당초 목표 관람객인 131만 명을 돌파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9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135만 384명으로 집계됐다.

군문화엑스포 기간 고공강하 시범, 전투 및 기동 시범, 군 장비 탑승, 무기장비 야외전시, 병영훈련, 과학화 장비 사격, 서바이벌 사격, 헬기 탑승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시관은 세계 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 군문화 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 융합관, 지역 산업관 등 7개관이 운영됐다. 이중 세계 평화관에서는 세계 전쟁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반도희망관에서는 우리나라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소개했다.

특히 8개국 군악대가 참여한 세계군악의장



군문화엑스포 전경.

콘서트와 로드퍼레이드 등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들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초청 국가는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프랑스,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이며, 각국을 대표하는 군악대가 참가 4개국씩 2개 그룹으로 나눠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독창적인 공연을 펼쳤다.

빠르고 신나는 템포를 선보인 미국, 스코틀랜드 전통 백파이프 연주를 가미한 영국, 파이어 드럼팀 퍼포먼스를 한 말레이시아, 백색의

제복을 입은 여군의 아름다운 안무가 돋보였던 베트남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외 뮤지컬 갈라쇼, K-POP 경연대회, 피스뮤직 페스티벌, 군복패션쇼, 코스프레 경연대회, 트롯 콘서트, 뮤지컬, 무용극 등도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세계군악·의장콘서트, 전투·기동시범, 로드퍼레이드 등 군문화엑스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조직위, 대행사, 군지원 인력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덕분에 당초 목표인 131만 명 돌파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군 복무중인 연예병사의 활약으로 팬들이 새벽부터 입장 게이트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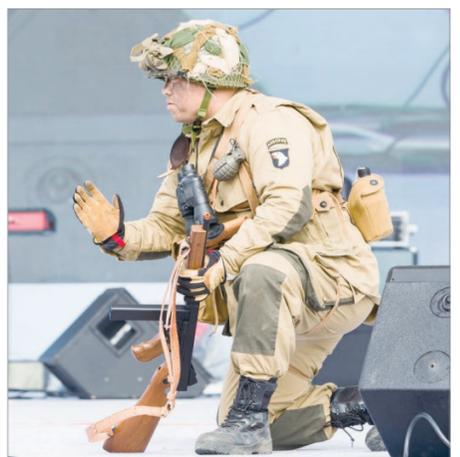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1156



군문화엑스포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otland 근위대 군악대가 전통 백파이프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K-밀리터리 코스프레 공모전 참가자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道 조직개편...자치행정국 폐지, 균형발전국 신설한다

##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11개 실·국 65개 과로 통합·조정 산업경제실서 미래 먹거리 창출

충남도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지역경제 성장 견인과 베이벨리 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 도지사 업무 지원 축소 및 시군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해 자치행정국을 폐지한다.

도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10월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현재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1개 실·국 65개 과로 2개 국 1개 과를 줄였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성장 견인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경제실로 통합했다.

산업경제실에는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해 나아갈 탄소중립경제과를 두고,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빌리티산업 기능도 신설한다.

산업경제실장 직급은 2급으로 높여 추진력을 강화한다.

도는 또 지역 특색을 살린 권역별 맞춤형 발전 동력 마련·추진을 위해 균형발전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균형발전국 내에는 기존 자치행정국에 있던 균형발전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바꿔 도내 5대 권역별 전략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토록 했다.

균형발전국에는 이와 함께 베이벨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주요 핵심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개발전략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양극화 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과도 신설한다.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은 자치안전실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현장 위주 행정을 실현하고 시군과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 도지사의 도정업무 지원 부서인 자치행정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기관 유치와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게 될 공공기관유치단도 신설한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관으로 변경해 도지사 직속으로 배치한다.

공보관은 공보관·대변인으로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도민 소통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main.do>) 입법예고(행정-법무행정-입법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8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월하스님 작품 만나다

### 윤선거 선생 후손, 서예작품 기증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10월 18일 노천 월하스님의 서예작품 '만년지청(萬年之靑)' 기증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기증은 소론 명재 윤증 선생의 아버지이자 충정오현 중 한 분인 노서 윤선거 선생의 11대손 윤석범씨가 서예작품 '만년지청'을 기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노천 월하스님은 윤선거 선생의 10대손으로 1915년 부여에서 출생하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중정을 역임했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많은 필적을 남겼다.



논산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10월 1일 개원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기능은 한국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교육, 국학자료 수집 등이며, 전 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개방·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041-981-9909

## 안면도 수목원 이용 편의성 더했다

### 무장애나눔길 조성·우산 대여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무장애나눔길 조성·무장애 우산 대여 등을 추진한다.

무장애나눔길은 길 위에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안면도 수목원의 구석구석까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태안사무소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일환으로 수목원 입구에 무지개색 희망 우산을 설치, 무인 대여하고 있다.

희망 우산은 양산으로도 사용 가능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쓸 수 있으며, 안면도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산책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반납하면 된다.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 041-635-7264



방문객들이 희망우산을 쓰고 산책하고 있다

## 이(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 청소년 이(e)스포츠 대회 개최 벵스·지역 게임업체 등 후원

충남도는 10월 16일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충남도지사배 청소년 이(e)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e)스포츠 중심지(메카) 조성'의 100일 과제로, 도내 이(e)스포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9개 시군 총 375명이 참가한 지역 예선을 통해 선

발한 36명의 본선 참가자가 참여했다.

대회 종목은 청소년 인기 게임인 '피파온라인4'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각각 개인전을 진행해 최종 우승자와 순위권자에게 충남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대회 결과 피파온라인4 종목에서는 정수빈(태안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박준서(서산시) 선수, 이정민(홍성군) 선수가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종목 우승의 영예는 김기명(아산시) 선수가 안했으며, 2위는 박지수(당진시) 선수, 3위는 노건하(아산시) 선수가 차지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도와 벵스, 도내 게임기업인 뉴에프오, 모하게임즈, 엔브로, 판프렌즈, 집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본경기 외에도 가상현실(VR) 체험, 이(e)스포츠 관련 청소년 진로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특히 진로 특강에선 천안 출신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의 전 프로게이머 윤하운(닉네임 '막눈') 선수가 프로게이머의 세계와 선수가 되는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도는 이(e)스포츠 경기장 건축을 위해 이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 오쟁이, 짚오쟁이

###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 - 짚으로 만든 곡식 담은 자루

"씨오쟁이는 찌꺼기만 거구 짚오쟁이는 큰 가마여. 짚오쟁이 이진이 곡 석 담을 때 쓴 거."

"짚오쟁이에 배를 담은 그제 한 섬이유."

'오쟁이'는 짚을 엮어 만든, 곡식을 담은 자루다. 100년 전까지는 추수한 곡식을 오쟁이에 담아 저장했다. 천섬지기니 만섬지기니 하는 집안의 곳간에는 오쟁이 더미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오쟁이의 다른 이름은 '섬'이다.

오쟁이에 담긴 곡식은 썩거나 상하지 않았다. 짚은 깨끗한 자연물로 공기를 소통시키며 습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선조들은 짚을 이용해 자루를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보관했다. 이 짚 자루가 오쟁이다.

오쟁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옛 선조들이 신던 벼선만 한 크기의 오쟁이다. 이는 씨앗을 보관하는 자루로 충청의 선조들은 씨오쟁이라 불렀다. 다른 하나는 커다란 자루로 짚오쟁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짚오쟁이는 전통적으로 충청의 선조들이 곡식을 담아오던 자루로, 이 짚오쟁이에 담긴 곡식을 한 섬이라 불렀다.

이 짚오쟁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와 서서히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일제는 가마니틀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가마니(叭,かます)라는 일본 자루를 대량으로 퍼뜨렸다. 일본의 가마니는 짚오쟁이에 비해 유리했다. 기계로 만들어진 가마니는 촘촘하고 튼튼했다. 이에 가마니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짚오쟁이에 비해 여러 번 쓸 수 있었다.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충청의 짚오쟁이는 일본의 가마니에 밀려났다. 해방이 될 즈음엔 모든 농가에서 가마니를 썼다. 우리 곁에서 짚오쟁이가 없어지자 짚오쟁이란 충청말도 '가마니, 가마'란 일본말에 밀려 사라져 갔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 맛풍당당

제철농산물 도장깨기

2022년 4월 ~ 2022년 11월

신선한 제철 상품을 즐기다보면 경품이~ 농사랑에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주세요!

행사 참여는 농사랑 웹사이트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http://www.nongsarang.co.kr>

공주오이, 부여수박



#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 도, 양극화 해소 정책포럼 개최 형태별 양극화 적절한 대처 필요

충남도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도는 10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양극화 해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한 이날 포럼은 전문가 발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2022년 이후 본격화될 경제현상 : 양극화의 네가지 추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스테이크플레이션은 4가지 형태의 양극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4가지 양극화는 개인 간의 양극화, 국가 간의 양극화, 업종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등이다.

이어 박 특임교수는 “이처럼 커다란 경제적 위기는 변혁을 가져온다”며 “이 변혁에 부합하는 형태로 시기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소득 양극화 현황과 요인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술진보로 고숙련과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비루틴 노

동수요는 증대했으나, 중간 숙련 일자리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기술진보에 따른 새로운 법적·정치적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태 공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박 특임교수와 정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 관계자는 “양극화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라며 “이번 정책포럼에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극화대책담당관실 041-635-3331



**금강수목원 황토메타길 재포장**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는 금강수목원 휴식·치유 공간인 황토메타길을 새 단장했다. 이번 시설 보강은 금강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에 더욱 쾌적한 휴양공간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황토메타길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400m 길이의 황토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건 강명소이다. /충남도 산림자연연구소 041-635-7371

## 충남도립대, 공직진출 1000명 돌파

### 지적·소방·행정·경찰 두각

충남도립대학교가 개교 이래 공직진출자 1044명을 배출, 중부권 최고 공직 명문대학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55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이 공직에 합격했다.

분야별로는 올해 지적직이 15명으

로 가장 많았고, 소방직 11명, 행정직 9명, 경찰·건축·환경 등이 뒤를 이었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도립대학교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자 배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올해 1000명을 넘긴 만큼, 2000명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679



백영.



연지랑.



진아이불.

## 충남산 국화 신품종 품종보호권 획득

### 백영, 핑크원더 등 7개 신품종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백영 등 충남산 국화 7개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이들 국화는 국립종자원의 재배실험에서 신규성과 균일성이 인정됨에 따라 향후 20년 간 품종보호권을 설

정하게 됐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신품종은 스탠다드국화 ‘백영’, 스프레이국화 ‘핑크원더’, ‘연지랑’, ‘핑키랑’, 화단국화 ‘진아이불’, ‘씨니블’, ‘미린블’이다.

스탠다드형 국화 백영은 겹꽃형 백색 대형 크기의 품종으로 꽃잎 수도 조밀하고 꽃의 수명이 길다.

연지랑은 분홍색을 띠는 흘꽃의 소형 스프레이국화로, 계절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고 절화수명이 길다.

진아이불은 자주색을 띠는 겹꽃 모양의 화단용 국화로 10월 상순 개화되며, 화분용이나 정원용으로 적당하고 월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403

## 주민센터서 상세주소 받으세요

### 상세주소 윈스톱서비스 제공

충남도가 주민센터에서도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편의는 물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윈

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적용해 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상세주소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1회 방문처리로 개선, 도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토지관리과 041-635-2864

### 도정게시판

###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개최

충남도가 모금활동에 기여한 기부자와 배분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나눔 문화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월 17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소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선정된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상식에서는 적극적인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금사업 우수 시군, 공무원,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총 59개의 유공자 표창을 시상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 도-발전 3사, 환경 개선 논의

충남도는 10월 13일 발전 3사(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발전 3사와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주민 보건 향상 사업 추진

을 위해 2017년 12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8년 5월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충청남도 마을 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설치·운영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양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계절관리제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비는 전액 발전 3사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5

###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충남도는 10월 13일 충남도서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0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타인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신건강 증진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기념식, 미니 콘서트, 정신건강 체험부스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는 정신질환 관련 퀴즈, 충남 정신건강 브랜드 전시 및 홍보, 내 마음 살피기 체험 및 마음건강 투자트리 꾸미기 체험 등을 운영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8

### 자살예방 ‘나눔 꾸러미’ 제작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0월 14일 (사)한국생활개선충남도연합회와 ‘사랑나눔 꾸러미’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생활개선회의 5대 과제 중 하나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충남생활개선회 도 임원, 시군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랑나눔 꾸러미를 제작했다.

사랑나눔 꾸러미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 담겼으며, 생활개선회의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 사업과 연계된 소외계층 150명에게 전달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42



## 혈당수치 낮추고 장 운동 돕는다

### 배명순 명인의 건강음식 만들기 -도토리묵 구이

**【재료준비】**  
재료 : 도토리묵 1모, 숙주나물 200g, 미나리 100g, 당근 20g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물엿 1큰술.  
부재료 : 식용유, 소금, 쌀가루 1/2컵.

### 【만드는 법】

- ① 숙주나물은 꼬리를 따고 씻어 물기를 빼고 미나리는 4cm 길이로 자른다.
- ② 당근도 미나리와 같은 길이로 굵게 채 썬다.
- ③ 묵은 가로로 반을 자른 후 1cm 두께로 잘라 쌀가루를 묻혀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굵는다.
- ④ 구워진 도토리묵에 양념장을 발라 놓는다.
- ⑤ 묵을 구운 팬에 숙주나물부터 볶기 시작하여 당근, 미나리 순으로 소금간을 하여 살짝 볶는다.(숨이 죽을 정도만 볶는다, 각각 볶아도 된다)

⑥ 접시에 도토리묵을 이쁘게 담고 그 위에 볶은 나물을 얹어 상에 낸다.

※ 도토리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폴리페놀 등 건강을 돕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 있다. 특히 도토리의 쓴맛을 내는 성분인 탄닌은 식물성 동물이나 해충 등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로 우리몸에서 활성 산소에 대응하고,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을 돕는다. 또한 도토리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추고 장운동을 돕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혈당수치에는 물론 목속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배명순 요리연구가

# 도민 의견 수렴해 민선8기 공약 확정한다

## 도민배심원 50명 안건 심의 검토 거쳐 12월 공약 확정

충남도가 탄소중립화 모델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수립 중인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으로부터 심의·승인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10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배심원 2차 회의에서 명칭 변경·통합·세분화·내용변경·폐기·역점과제 등 유형별 총 18건의 심의 공약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민배심원단은 민선8기 130개 공약

중 변경 또는 수정돼 선거 공보와 불일치하는 ▲충남형 탄소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등을 심의한다. 활동 기간은 11월 1일까지이며,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권고안을 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배심원단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검토를 거쳐 후 12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을 확정한다. 도민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계획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약과 실천

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선8기 공약을 기반으로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치고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50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최종 선발, 지난달 27일 1차 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정책기획관 041-635-2117

# 日 공공외교 특별사절단 파견

## 내년 대백제전 초청 등 논의

충남도는 10월 20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차 축제’에 시즈오카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부 한일정책협약단 이후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8월 도내에서 개최한 환황해포럼의 내빈 간담회 중 시즈오카현의 공식 초청 제안을 통해 연계 추진했다. 이날 제8회 세계 차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특별사절단은 판로 확대를 위해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축제에 참여한 금산인삼의 홍보관 등 행사장을 둘러보고 세계 각국의

차 종류와 차 관련 문화·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어 특별사절단은 교토로 이동해 나라현 국제과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유치, 도 주최 국제행사 초청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특별사절단은 앞선 19일 도쿄에 도착해 국회의사당을 방문, 일본 국회의원 등을 접견하고 교류·협력 방안과 2023 대백제전 초청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시즈오카현으로 이동해 지역 외교국장 및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 등과 함께 2023년 도·현 우호 협력 기념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1



대둔산도립공원에서 가을 만끽하세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가을철 단풍을 보기 위해 대둔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코자 산책로를 단장했다. 금산·논산지역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은 낙조대, 수락계곡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단풍 명소로 매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탐방객들이 대둔산의 가을경관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사목 정리, 예초 작업, 탐방로 청소 등 산책로 단장을 진행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6971

# 생활 속 녹지공간 만들기 속속 매듭

## 미세먼지차단숲, 학교숲 등

충남도가 추진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생활 주변 편의 제공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먼저, 28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차별 사업인 미세먼지차단숲 16곳과 도시바람길숲 2곳은 11월 말까지 올해 계획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2024년 조성완료 계획에 맞춰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공간 유지

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산림공원 5곳 중 당진시와 예산군은 11월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휴식과 자연생태 교육의 장 제공을 위해 10개 시군,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투입한 학교숲은 지난 9월 사업을 완료했다. 도심지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은 25억 원 투입했으며, 도내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산림자원과 041-635-4510

#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성주산·옥마산·만수산·백월산 대상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도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산지 오염 유발 행위 등이다. 버섯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438

# 인권 가치 공유의 장 열렸다

## 충남 인권주간 기념행사 개최

충남도는 10월 19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충남 인권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 관련 기관·단체, 도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에 앞장선 한뼘인권행동 배은경 대표와 제7회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시·

에세이·캘리그래피·사진 분야 입상자 8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도민의 인권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충남도서관 1~3층에서 인권도서 및 인권공모 작품 전시, 인권 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람 등 인증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611

# 일본 최대 와전 컬렉션 속 백제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 일본 데즈카야마대학 부속박물관 이우치 컬렉션

물관’으로 알려진 만큼 대표적인 와전 소장처이다. 1965년에 고고학연구소 실 겸 박물관으로 출발한 이곳에는 동아시아 세 나라의 와전 7500여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중 한국 와전은 2981점(2017년 기준)으로, 일본 최대 규모이다. 이곳 소장 와전은 여러 인물들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한국 와전은 이우치(井内) 컬렉션 2746점, 니시가미(西上) 컬렉션 42점, 다카다(高田)컬렉션 24점, 히로미(廣海) 컬렉션 144점, 기타지마(北嶋) 컬렉션 17점, 그리고 신규 수집품 8점이 있다. 따라서 소장품의 대다수는 이우치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이우치 컬렉션은 이토 쇼베이가



이우치 컬렉션 연화문수막새.



191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것들이 토대를 이룬다. 이토의 수집품은 1945년 재정난으로 이마이즈미 도시아키(今泉利秋)에게 매도되었다가 1964년 이우치 이사오(井内功, 1911~1992)가 입수하였다. 현재 이우치 컬렉션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유급와당박물관, 그리고 데즈카야

마대학에 분산되어 있는데, 데즈카야마대학은 1982년과 1989년에 각각 구입하였다. 소장품에는 충남의 문화유산인 웅진·사비시기의 백제 기와도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81점으로, 대부분 수막새라고 한다.

이들 수막새 중에는 뒷면에 ‘부여’, ‘부여사(扶餘寺)’, ‘군수리(軍守里)’ 등 출토지역과 관련된 묵서(墨書)가 있는데, 이를 통해 부여 지역에서 수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막새의 문양은 연꽃이 주를 이루며, 연판에 불륨을 주어 부드럽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 이는 이전 한성시기 수막새의 단순하고 기하학적 문양과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의 기와는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와 사원 건축 기술의 전파 경로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현전하지 않는 당시 건축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유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본 나라(奈良)의 데즈카야마대학(堺塚山大學) 부속박물관은 ‘와전 박



중부대 배구 결승전 모습.



8연속 우승을 차지한 카누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통 강호 충남 전국체육대회 종합 5위...상위권 재진입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폐막  
도 선수단, 종합 5위 차지  
역도종목서 한국신기록 달성

충남도 선수단이 역도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선전하며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

회가 10월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충남도 선수단은 금메달 62개, 은메달 66개, 동메달 76개를 획득해 총득점 4만 1378점을 기록, 시도 종합순위 5위와 성취상 2위를 달성했다.  
종합 5위는 도 선수단이 목표로 한 종합 6위를 초과 달성한 성과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충남은 카누(8연속 우승), 핀수영, 역도 종목에서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축구, 배구, 야구, 육상(로드레이스) 종목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역도 종목에서 장연학(아산시청)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진희(충남체고)·한지혜(충남체고)·차병준(당진정보고) 선수도 각각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육상의 이재하(서천군청) 선수가 1600mR 종목 대회 신기록을 쓰며 2관왕에 오르는 등 육상, 역도, 사격, 카누 등에서 총 8명의 선수가 각각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체 종목에서는 천안고 배구팀이 중부대와 함께 동반 우승하면서 2012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의 영광을 누렸고, 아산고 하키팀은 대회 6연패에 성

공해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다년간 1위 입상자로는 12연속 우승한 복심 라이트헤비급 김동희(보령시청) 선수, 7연속 우승한 우수 남권전능 이용문(충남체육회) 선수, 5연속 우승한 핀수영 최민지(충남체육회) 선수, 4연속 우승한 태권도 장준(한국체대) 선수, 3연속 우승한 육상 높이뛰기 이상혁(서천군청) 선수 등이 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4

## 감자와 콩 심는 이모작으로 농가소득 ↑

이모작 농지 ha당 100만 원  
거주지 주민센터서 신청

충남도가 농지의 이용효율 및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모작 재배 농가에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이모작 농지 ha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현재 2.6%에 불과한 이모작 재배농가를 2026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밀·보리·조사료 등 식량자급률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모작 하계작물은 콩, 옥수수, 감자, 녹두, 수수, 귀리 등이며, 동계작물은 보리, 밀, 호밀, 조사료 등이 해당된다.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사업대상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형 씨감자 전문생산단지 전경.

사업 신청기간은 내년 2~3월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5

따뜻한 자활공동체 만들어요  
청양군민체육관서 자활한마당

충남도가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도민들이 성공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8회 충남자활한마당’ 행사가 10월 14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행복’을 주제로 열렸다.  
도가 후원하고 충남공역자활센터,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 충남자활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로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과 041-635-4245

## 동양과 서양미술의 중심을 꿰뚫다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용노  
화백 삶과 예술

동양의 한자와 세계 문자의 시원을 연구하던 고암은 동양의 상형문자와 금석문, 페르시아 문명의 췌기문자(수메르어, 고대 페르시아어 등), 아랍문자, 유럽 전통의 캘리그래피 등을 자유자재하게 구성하여 현대미술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한다. 나무, 바위, 구름, 새, 곤충, 동물 등 자연의 형태와 춤추는 사람 형상이나 동양의 상형문자를 결합하여 구성(Composition)시리즈를 탄생시켰다. 이후 태피스트리, 한 목재, 나무가 구, 양털, 솜, 한지꺾라주, 수묵, 나무조각,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독특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문자추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복잡한 구조의 문자들이 결합하면서도 간결한 짜임새와 3차원적 깊은 공간감은 유럽 예술인들에게 높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용노의 근본이었던 동양 미학을 근간으로 문자추상(Composition)이라는 현대미술의 새 길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이용노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다양한 재료들로 실험하면서도 서화, 수묵, 풍경, 인물, 화조, 사군자 등 자신을 이끌고 깨우치게 했던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창작이라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고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부지런하게 사색과 소묘를 연습했다.  
/황찬연 DTC아트센터 책임큐레이터

▶ 작품설명  
사람의 형상과 문자를 결합한 문자추상 양식으로 “예술藝術”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상단부분은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춤을 추는 형상이고 하단부분은 삼삼오오 어우러져 각양각색의 형태를 만들면서 상단부분의 형상을 지지해주는 형상이다.



문자추상.한지에 수묵담채,141x76cm,1970년

새로운 시작,  
꿈꾸는 곳에 너를 채워봐!  
개교 이래 991명 공직 진출!

입시문의 **Ch** 충남도립대학교 입시 Q&A **Q** 카카오톡 채널검색

수시일정 ▶ 수시1차 : 2022. 09. 13. (화) ~ 10.06. (목)  
▶ 수시2차 : 2022. 11. 07. (월) ~ 11.21. (월)

원서접수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http://www.jinhakapply.com) |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충남도립대학교**  
Chungnam State University

[www.cnsu.ac.kr](http://www.cnsu.ac.kr) 3330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막사길55 Tel 041. 635. 6600 Fax 041. 635. 7950

**충남도립**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 탄소중립, 충남이 선도한다



##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탄소중립 경제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 이번 선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뛰어넘는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새롭게 변화할 충남을 기대하며 탄소중립 경제 5대 가치와 미래 구상을 함께 살펴본다. /이해든 deun127@korea.kr

### 탄소중립 경제 5대 핵심가치

###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센 충남'



#### 주요사업

- 에너지 리빙랩
-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구축

#### 창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혁신

#### 주요사업

- 석탄화력 중사자 일자리 전환 지원
-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 해상풍력 배후산단 조성

#### 공정

정의롭고 합리적인 지역 산업구조 전환

#### 혁신

청정에너지·미래기술·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 주요사업

-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화이트 바이오 첨단소재화 플랫폼 구축
- 그린 K-UAM 실증기반 조성
- 언더2연합 주도

#### 주요사업

- CCU 연구개발 실증센터 구축
- RE100 및 CF100 산업단지 조성
- 수소환원제철
-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 전환

무·저탄소를 선도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 순환

지속가능한 자원 에너지공급 체계 확립

#### 주요사업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전소
-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산업기반 구축



### 우리 충남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50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청남도'



#### 가정

- ✓ 국민DR, 스마트그리드로 에너지효율 최적화
- ✓ 생분해성 비닐봉투 상용화
- ✓ 잔반의 퇴비화 및 바이오가스 추출·활용



#### 공동체

- ✓ 신재생 마을발전소 운영으로 에너지 자립
- ✓ 에너지리빙랩 일상화
- ✓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지역소득 증대



#### 기업

- ✓ 탄소배출 제로(RE100, CF100, 탄소중립 기술개발)
- ✓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전소
- ✓ 탄소포집 및 산업소재로 활용



# 찬란한 은빛 물결, 오서산으로 억새꽃 보러 갈까?

해발 791m 정상에 억새꽃 절경  
'서해의 등대' 천수만 풍경 만끽

**[홍성]**가을바람에 파도치는 억새물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홍성의 명산 오서산이 억새꽃 절경을 이루며 전국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다.

홍성군 광천읍과 장곡면 등에 걸쳐 산세를 뺨고 있는 오서산은 금북정맥(금강 북쪽의 산줄기)에서 해발 791m 이르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예로부터 천수만 일대를 향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해 '서해의 등대'로 불려왔다. 오서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의 보고 천수만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아름다운 낙조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가을이면 오서산은 은빛 물결이 파도치는 억새 바다로 더욱 빛난다. 오서산 9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약 2-3km가량 이어진 억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의 정취를 더욱 깊게 해준다.



충남 홍성군 오서산 정상 부근에 억새꽃이 활짝 피 있다.

상담마을 주차장을 출발해 오서산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용허리, 줌방바위, 대문바위, 신랑신부바위, 농바위, 선질바위 등으로 불리는 기묘한 바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정암사 주변은 느티나무, 들메나무, 팽나무 등 활엽수 식생이 나타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산 후에는 오서산 아래 웅암리 토굴새우젓 거리와 광천전통시장에 들리면 가을 김장 준비도 할 수 있다. 홍성의 대표지역특산물인 광천토굴새우젓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토굴 속에서 자연 발효돼 살이 단단하



오서산에 만발한 억새꽃

고 쫄깃하며 단맛이 나고 젓국물이 희고 맑은 것이 특징이다.

정동규 광천읍장은 "홍성의 명산인 오서산에 오셔서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시고, 가을김장을 위해 홍성의 명품 대표특산물인 광천토굴새우젓도 준비해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서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상담마을영농조합법인(041-642-0709)에서는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억새풀식당을 운영, 마을주민이 생산한 농산물로 직접 만든 두부, 들깨칼국수 등 건강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 건물번호판에 QR코드 도입

고도화된 주소정보서비스 제공

**[부여]**부여군이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도입했다. 지난달부터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417개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해 QR코드 건물번호판으로 바꿨다.

이번 사업은 군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물번호판에 대해 매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체조사 결과 훼손·망실 등 비정상인 것으로 조사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QR코

드를 도입했다. 이번 QR코드 삽입으로 위치 찾기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번호판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현재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지도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 홈페이지, 주소정보누리집,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등으로도 바로 연결된다. 고도화된 주소정보 서비스 제공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QR코드가 도입된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정비로 빠르고 신속한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 전국 씨름 고수 모인다!

26~29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

**[태안]**전국 최고의 아마추어 씨름선수들이 충남 태안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태안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남녀노소 아마추어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통령배 2022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씨름대회로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태안군씨름협회 및 충청남도씨름협회가 주관하며 태안군이 후원한다. 초등·중등·고등·대학·청년·중년·장년부의 남자부와 대화·국화·무궁화급의 여자부 등 총 10개부 680명의 선수가 대거 참여해 자웅을 겨룬다.

개인전과 단체전(시·도 대항전)을 통해 전국 최고의 씨름왕을 가리며, MBC스포츠플러스 채널이 중계를 맡

아 전국 최고의 씨름팬들에게 씨름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가 열리는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은 지난해 준공된 최신 경기장으로 연면적 6,223.8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총 2,046명의 관람객이 입장할 수 있으며 대회 '직관'을 원하는 군민 및 씨름팬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의 씨름대회는 지난해 개관 기념으로 열린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만큼 이번 대회가 씨름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씨름왕 선발대회에 이어 30~31일에는 같은 곳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씨름강군 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 문화도시 공주시 '미래기억 페스타' 연다

'신관동' 서 신개념 거리축제

"공주의 다양성 보여주겠다"

**[공주]**세계유산도시이자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공주에서 신개념 거리축제인 '2022 공주 미래기억도시 페스타'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신관동 대학로 거리에서 열린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젊은이들의 거리인 대학로와 신규 상권이 있는 '신관동'을 브랜드화하기 위함이다. 주최측은 백제의 고도라는 역사성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젊은이의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9일에는 대학로 거리 일원에서 마임과 서커스, 버스킹, 댄스 공연 등 할로윈 콘셉트에 맞춘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30일에도 DJ G-Park(개그맨 박명수)가 디제잉하는 신나는 EDM 파티 '박명수야 놀자'가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공주시는 그동안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향이 많았던 만큼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지명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공주의 다양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공주문화재단 이준원 대표이사는 "공주문화도시를 미래기억을 품은 도시이고 그래서 미래기억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공주시민과 출향민 나아가 방문객까지 공주에 대한 미래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의 성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주의 소규모 읍면 단위까지 브랜드를 확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제공

##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만 55~64세 및 취약계층 대상

**[서산]**충남 서산시가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접종은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대상자와는 별개로 서산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총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6만명이며, 그중 서산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자는 약 1만 2900명이다.

국가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 등으로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어르신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단, 서산시 보건소에서는 국가지원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

시가 확대 지원하는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부터 64세의 어르신과 만 14세부터 54세까지의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으로 10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원한다.

/서산시 제공

대상자는 서산시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주소지 인근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지정된 날짜에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1-661-6524, 660-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사회 내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대상자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독감을 예방하고 겨울철 건강관리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어서와 계룡은 처음이지?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캠프

사계고택 전통의례 체험 등

**[계룡]**계룡시는 서울 청소년 16명을 계룡시로 초청해 계룡-서울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캠프 '어서와 계룡은 처음이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5월 계룡시와 서울시가 각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되었다.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를 통해 모집된 16명의 청소년은 계룡시의 대표 볼거리인 사계고택에서 전통의례 체험,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를 관람하는 등 계룡시 곳곳을 탐방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역사문화교류 캠프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이번 역사문화교류를 통해 자연환경과 軍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도시를 알게 되어 색다른 경험이였다"며, "특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 참여해 우리 軍 문화를 체험하고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캠프에 참여한 서울 청소년들이 사계고택에서 전통의례 체험을 하고 있다.

/계룡시 제공

# 국내 최초, 얼룩 새우 상업 양식 성공

### 자연 생태계 순환방식 활용 양식 어가 안정적 소득증대

**[당진]**당진시가 국내 최초로 블랙타이거 거로 잘 알려진 얼룩 새우의 상업 양식에 성공했다.

블랙타이거 종자는 무병 및 육종 개량한 종자로 고밀도 사육이 가능한 품종으로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양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흰다리새우 다음으로 많이 양식되는 품종이다.

현재 양식 중인 블랙타이거 새우는 올해 5월에 태국으로부터 종자 15만

미를 이식한 뒤 바이오플락 양식 방법을 활용해 양식하고 있으며 현재 1kg에 40미 내외까지 성장했다.

특히 이번 양식에서 사용된 바이오플락 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해 양식장 생물에서 발생하는 독성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을 분해·정화하고 미생물이 양식 생물의 먹이원이 되어 수산 생물을 성장시키는 자연 생태계 순환방식을 활용한 친환경 기법으로 양식 성공뿐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식 성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선한 새우를

소비할 수 있으며 양식 어가의 소득증대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혁신을 통해 어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식 성공을 통해서 흰다리새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새우 양식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양식된 블랙타이거 새우는 다음 달부터 출하될 예정이며 일부는 계속 양식해 자체 종자생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양식에 성공한 블랙타이거 새우. 맨 아래 흰다리 새우.

## ‘제10회 꽃과 바다 태안 국화축제’ 개최

### 옥과 이종일 선생 생가지서 다양한 국화 조형물 선보여

**[태안]**충남 태안군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화 축제가 열린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원북면 반계리 옥과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제10회 꽃과 바다 태안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의 태안을 상징하는 이번 국화 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군민 및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면 단위 행사로 진행되

다 지난해부터 군 주관 행사로 전환돼 올해 더욱 풍성한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원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아래 태안8경, 독립문, 주구미, 꽃담, 대형 하트, 한반도 지도, 각종 동물 등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이자 1898년 순한글 일간지 ‘제국신문’을 창간한 독립운동가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를 둘러보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의미가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원북면 옥과 이종일 생가지에서 열린 제9회 태안 국화축제

군은 축제장 내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과 특색 있는 체험부스를 마련해 관광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태안군 제공

## ‘녹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선정

### 동화 속 성같은 해안 경관 멋진 풍경 가득한 돌레길

**[보령]**보령시 녹도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에 선정됐다.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은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 있는 ‘걸어봐 섬’,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물들었 섬’, 천고마비의 계절을 테마로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있 섬’ 등 3가지 테마로 나뉘었다.

이중 녹도는 전북 군산시 대장도, 경남 거제시 내도, 경남 사천시 월등도, 전남 고흥군 연흥도 등과 함께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 있는 ‘걸어봐 섬’에 선정됐다.

섬 모양이 마치 사슴이 누워있는 모습과 닮은 녹도는 대전항으로부터 25km의 거리에 있는 0.9km<sup>2</sup> 면적의

조그만 섬이지만 80여 가구 250여 명의 비교적 많은 주민이 사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서구의 옛 성처럼 보이는 해안 경관을 가졌으며 선착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녹도 돌레길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허성원 해양정책과장은 “보령에는 녹도와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섬이 많이 있다”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돌레길을 걸을 수 있는 녹도에서 힐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녹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한국섬진흥원 SNS계정, 보령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 제공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의 ‘걸어봐 섬’ 부문에 선정된 보령시 녹도 전경.

## ‘포상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는다

### 부여군-대전지방보훈청 업무협약

**[부여]**부여군이 포상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선다.

군은 2020년부터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연구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 부여 출신 독립운동가 425명을 발굴해 냈다.

1차 용역에서 찾아낸 163명 중 92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33명에 대한 포상이 결정됐다.

2차 용역에서 발굴한 262명 중 140명에 대한 서훈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직무대리 김상희)과 ‘포상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며 상호 협력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업무협약서에는 ▲후손찾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정례 개최 ▲후손찾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지역 독립운동가 묘소 및 후손찾기 캠페인 추진 ▲지역 독립운동 사료 발굴, 소장 자료 교환 및 공유 ▲기타

후손찾기 관련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고루 담겼다.

대상 독립유공자는 3·1운동을 한 김덕빈·강석희·추해룡·김근규, 국내 항일운동을 한 강도형·강주구·권병주, 만주방면 운동을 한 김소범, 의병활동을 한 송순목·신봉만·김판돈·이박원·이덕현·이성택·정용운·권운택·한사용·한성수·한기안·한락산·우제홍 등 총 21명이다. 제적등본이 확인되지 않아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다.

/부여군 제공



벼 타작은 이렇게 **[청양]**충남 청양두레농악보존회(회장 최창만) 주최로 지난 17일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들녘에서 열린 ‘손 벼 베기·벼 수확 체험행사’에서 김돈곤 청양군수(왼쪽)와 김명숙 충남도의원(가운데) 등이 전통 방식으로 벼 타작을 하고 있다. /청양군 제공

## 외국인 근로자 참여농가 신청 받아

### 11월 4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기대

**[논산]**충남 논산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내달 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논산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국내 입국을 위한 출입국 허가 증명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시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1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쳤거나 근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0여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해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큰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논산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외의 도시들과 인력수급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산시 제공



# 김 호연재를 그리며

## 내포칼럼



백승종  
전 서경대 교수

‘우리 역사에서 여성 선비는 없을까요?’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알고 보면, 우리 충청도에는 이름난 여성 선비가 많았다. 김 호연재(1681~1722)가 대표적인 분이였다. 김씨 부인은 ‘호연지기(浩然之氣)’ 즉,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활달함을 추구해 호연재라는 호를 즐겨 썼다. 그분의 생애는 당대의 석학이던 미호(姜湖) 김원행(金元行)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호연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비 집안 출신이었다. 그분은 홍주(현 홍성군) 출신으로, 군수 벼슬을 한 김성달의 따님이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문충공 선원 김상용의 고손녀였다. 호연재 부인의 시가(嫗家)도 굴지의 명망가였다. 부군인 송요화(宋堯和)는 이름난 학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증손이었다. 친정어머니 역시 빼어난 문장가인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후손이었다.

김원행이 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호연재는 유교 경전과 역사에 능통하였고 한시를 참 잘 지었다. 행실도 매우 삼가서 여성의 도리를 잘 닦았다. 부인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래 섬기지 못한 것을 원통스럽게 여긴 나머지 아직 살아계신 시숙부를 최후까지 정성을 다해 모셨다.

그런데 호연재를 가장 호연재답게 만든 것은 저술이었다. 평생 무려 244수나 되는 한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는 떠난 친정 마을을 그리워하는 작품이 여럿이었다. <달을 바라보며 고향집을 생각한다>라든가 <고향 집을 떠난 마음 날로 근심이 깊어>, <꿈에 집으로 돌아가다> 등이 있다. 호연재의 작품은 『호연유고(浩然遺稿)』라는 책자로 정리되었으며, 그밖에도 여러 편의 글이 남아 있다.

기왕 말을 꺼낸 김에 <꿈에 집으로 돌아가다>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규방 여인으로 태어났으니/ 한스럽게 그치지않아// 아, 이 몸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보냐// 뜻은 있어도 말조차 꺼낼 수 없나오/ 글을 가지고도 감히 어찌할 수 없네// 소리를 죽여 통곡하니/ 눈물이 내 옷을 적시누나.’ 뜻이 고상하고 포부가 웅대한 여성 선비의 고뇌가 이보다 더 절실히 표현된 예를 필자는 아직 본 적이 없다. 호연재의 ‘젠더 감수성’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한 편의 시로 어찌 호연재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는가. 다시 <술에 취해>라는 시도 함께 읽어보자. ‘술에 취하자 천지가 드넓어지네/ 마음을 열고 보면 만사가 화평도 하네// 초연히 자리에 드러누웠다네/ 즐겁기만 하여 잠시 어찌할 바 몰랐네.’ 평소에는 우울해하다가도 한잔 술을 마시면 흡사 영웅호걸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호방해지는 이가 호연재였다. 부인의 우울과 호방함은, 당대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이 강요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싶다.

호연재는 자신을 일컬어, ‘즐거움도 슬픔도 없는 술 취한 미치광이’라고 하였다. 일상의 괴로움 잊으려고 부인은 때로 술도 마셨고 담배도 피웠다. 남초(담배)를, “근심에 가득한 내 속을 풀어주는 약”이라고 말하며 사랑하였다. 시대를 앞선 탁월한 여성이었기에 호연재 부인은 낡은 가치관의 속박에 몹시도 큰 괴로움을 느낀 것이었다.

지금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호연재는 얼마나 좋아할까. 올가을에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동춘당을 꼭 찾아갈 생각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공원 안에는 호연재의 거처가 남아 있어 방문자를 반긴다.

## 충청의 대표 여성 선비

김 호연재(1681~1722)

244수의 한시에 담긴 탁월한 '젠더 감수성'

웅대한 포부를 가졌던 시대를 앞서나간 여성

# 서천, 위케이션의 성지 되길

##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모두가 떠났다. 충남의 최남단 서천군은 소멸위기 지역이란 오명속에 이제는 5만명의 인구도 위협받으며 고령화 40%대의 노인들의 도시로, 때로는 소멸 통계수치 최상위권에 항상 그 이름을 올려왔다.

그랬던 이곳에 젊음이란 이름의 화려한 꽃망울이 또 다시 피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 어느 날 6명의 도시 청년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한산면을 찾아 ‘살기술학교’를 열어 마을 주민들의 삶 기술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생한 가득한 활력을 불어넣더니 이제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초청해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개념인 ‘위케이션’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비교적 일상화된 개념인 ‘위케이션’은 재택근무를 넘어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여행지나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세계의 벤처기업과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성행해 국

내 기업들에도 확산하고 있는 원격 근무 방식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30대로 구성된 ‘살기술학교’는 자신만이 가진 삶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전통과 장인의 혼이 깃든 ‘한산행’을 그동안 열심히 실천해 왔다. 이들은 한달살기, 6개월 살기 등의 구체적 거주 목표를 비롯해 사진관, 한산상회, 클럽파티장, 요가교실, 유튜브 방송, 미용실, 문화대장간, 연극단 운영 등과 더불어 자체적인 마을축제까지 개최해 왔다. 이들의 도전은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쩌면 사라져 가는 도시에 희망이라는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무관심과 냉소적인 시각을 버리고 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해야 했음에도 이들 청년들은 자력으로 지금까지 버텨 왔고 이번에도 서천의 젊음을 위해 ‘위케이션’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술학교가 수도권 기업들과 연대한 ‘위케이션’ 사업이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서천군의 관광산업 발전 외에도 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바라건대 서천군은 이번 사업을 ‘살기술학교’의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서천군을 매력적인 ‘위케이션’ 도시로 육성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누가 박석모를 고자질 하였나

##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11)



소중애 동화작가

초등학교에서 38년간 근무를 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초등학교 선생을 할 거야”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웃었다. 남다른 투철한 교육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애들은 나를 웃겼다. Y 자 나무에 궁둥이가 끼어 웃겼고 의자 등받이나 미끄럼틀 등등 상상도 못할 곳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끼어 웃겼다.

이런 일로도 나를 웃겼다. 햇빛을 받아야 탄소동화작용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미리 물 담은 수조 하나는 창가 햇빛이 드는 곳에 놓고 다른 하나는 그늘진 교실 뒤 진열대에 놓았다. 시간이 지나자 착한 이끼들이 창가 수조에서는 초록색으로 아름답다고 뒤쪽 진열대 수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조용했다.

장학지도가 있는 날, 근엄한 표정으로 교장과 장학사가 교실에 들어왔다. 햇빛을 받은 수조에 물이끼가 낀 이유에서는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햇빛을 받지 못한 이쪽 수

조에는 왜 이끼가 자라지 않았을까요?”

질문에도 슬쩍 답을 비쳤는데 단 한 명만이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아이를 시키고 싶지 않았다. 항상 이상한 말만 하는 애였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더러우면서 깨끗해요, 깨끗하면서 더러워요?”

“선생님은 못생기면서 예뻐요 예쁘면서 못생겼어요?”

이런 질문만 하는 애였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 그 아이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물 이끼가 안 자란 것은 우리가 너무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맞다. 맞아.”

그 아이 답이 맞다고 소리쳤다. 교장과 장학사는 웃으면 교실을 나갔고 나는 교사가 먼저 답을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룰을 어기고 땀을 흘리며 답부터 알려주고 설명을 했다.

이 책에 나오는 박석모는 언제나 나머지 공부를 하는 양가집(통지표에 양과 가만 있다고 해서 생긴 말) 자체다. 어느 날 나머지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교장 선생님과 부딪혀 다치게 했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다치게 한 범인을 색출하는데 쪽지가 하나가 날아왔다. 뽕뽕뽕 글자도 틀린 쪽지에는 박석모가 교장선생님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먹고 놀고 하고 싶은 일을 맘껏하게 해 주면 정말 웃긴다. 창의적인 머리가 트여 기발한 생각이 샘솟기 때문이다.

# 충청 사투리의 걸쭉한 입심, 소설가 이문구

## 윤성희의 만감(萬感)

보령 출신 소설가 이문구는 인간적으로 보면 잔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6.25때 남로당 보령군 총책을 맡았던 부친이 경찰에 붙잡혀 죽었고, 둘째와 셋째 형도 부친에 연루된 혐의로 그때 같이 죽임을 당했다. 생때같은 아들과 두 손자의 죽음을 목격한 작가의 조부도 참상을 견디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천동과 벼락이 몰아치던 가족사의 한복판에서 있던 작가의 나이는 그때 아직 열 살이었다.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빨갱이 자식’이었던 이문구에게 소설 쓰는 일 말고는 달리 할 만한 게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그 비극적인 가족사는 우리 문학사가 큰 산맥 하나를 움기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로 하여 우리는 위대한 소설가 한 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훗날 어떤 사람은 그를 일컬어 ‘장엄하고 우뚝한 문장의 산맥 하나를 온전히 홀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찬사를 바쳤다. 그가 향년 6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문학의 왕이 붕어(崩御)했다’고도 썼다.



명작의 고향인 보령시 대천동 관촌마을 모습

보령시 대천동 ‘관촌마을’은 작가의 출생지이자 그가 쓴 수많은 작품의 무대였다. ‘나의 선대와 나를 키워준 고향이라는 애착심보다 부모 형제를 잡아먹은 원수와 닮름없는 저주의 땅’이라고 외면했지만 끝내 고향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 땅의 작가였다. ‘관촌수필’이나 ‘우리동네’ 연작들은 고향이라는 바다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물질을 한 망사리 속 채취물이었다. 우리는 그 채취물들로 하여 작가의 고향에 대한 질긴 숙명과도 같은 애착을 본다.

나는 충청도의 입말을 그토록 잘 지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문구 말고는 보지 못했다. 판소리로부터 연원한 해학과 풍자가 김유정, 채만식을 거쳐 이문구에 이르러 마

침내 바다를 이루었다고 믿는다. 북한에 벽초 흥행회가 있다면, 남한엔 명천 이문구가 있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이문구를 발탁한 스승 김동리가 이문구를 두고 ‘우리 문단에 가장 독특한 스타일리스트가 나올 것’이라 했던 예언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관촌수필’의 무대가 되었던 부영재와 왕소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관촌마을’ 안내비가 있지만 그조차도 도시화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바라보는 심회가 쓸쓸하다. 그의 작품은 걸쭉한 언어의 유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 문학의 귀함은 사라지고 있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 시골에 기회가?... 청년창업가가 들려주는 농촌 희망 스토리

## 김만이 초록코끼리 대표

**[홍성]**서울에서 태어나 한 번도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던 청년. 그러나 이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골에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며 인파로 북적이는 도시가 아닌 한적한 농촌에서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청년이 있다.

지난 23일 광천읍 소재 흥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입주창고에서 만난 김만이 초록코끼리 대표는 “농촌은 사람과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지만, ‘망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만큼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돼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 도시청년이 시골청년이 되기까지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만이 대표는 졸업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입사했다. 김 대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하며 “농촌 경험이 없는 내가 농촌에 관한 일을 하고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김 대표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농업·농촌 컨설팅 업체인 지역아카데미에 입사했다. 김 대표는 주 2-3회 가량 농촌을 직접 방문해 농촌 활성화, 도농교류, 귀농귀촌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제 농촌은 ‘사람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시골’ 하면 마치 망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저는 농촌과 농업의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돼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농촌은 사람과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청년 김만이는 이제 시골청년이라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청년 하나가 농촌에서 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내면 많은 청년들이 시골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농촌을 청년들이 찾아오고, 기회와 가능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나중엔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데 기여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 청년창업과 초록코끼리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제일 놀랐던 건 농업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도 조금 더 트렌디(경향적인, 유행적인, 앞서가는 등의 의미)를 가진 신조어)한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했고 로컬푸드 새벽배송 서비스를



김만이 초록코끼리 대표

개시했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하는 거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이미 거의 모든 상품 분야에서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원재료를 제공하는 농촌지역은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문제로 인식했고 창업의 출발점이 됐어요.”

로컬푸드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록코끼리는 김만이 대표가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홍성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밀키트(meal kit), 손질된 식재료)가 담겨져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키트로 가공돼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은 홍성지역에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천안과 아산, 공주와 세종 등 사업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이다.

동물 다큐멘터리 애청자였던 김 대표는 “코끼리아말로 밀렵에서 가장 힘든 동물”이라며 초록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운송한 초식동물의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촌과 코끼리는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농업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기반이고, 때문에 농업이 이뤄지는 공간인 농촌은 가치 있고 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코끼리라는 이름은 우리 농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그가 말하는 농촌의 미래

“농촌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작은 부가가치예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이어 오신 분들과 농촌에서 활약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 농촌의 인재상은 농촌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농촌에 힘을 보태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도시의 빠른 발전이 오히려 농촌 수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가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도시는 그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또, 전에는 2년 주기로 새롭게 출시되던 서비스나 상품이 이제는 3개월이면 새로 출시되고 있어요. 사람의 품과 마음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도시가 발전할수록 힘이 있는 농촌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농촌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그 점을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홍주신문 제공

## ‘양승호의 생태예술’ 도록 프랑스 현지 뜨거운 반응

### 21회 나오리프랑스 생태예술행사

**[태안]**지난 20여년간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국제예술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는 양승호 작가는 올해 제21회 나오리프랑스 생태예술행사(Naori France Eco-Art)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시 태안으로 돌아왔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시(도예·설치·분재·평면)·워크숍(도예·무용)·퍼포먼스·컨퍼런스·분재시범·한국음식나누기·한국 전통 통가마 불때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탈아트의 개념으로 펼쳐졌다.

개막식에서 소개된 ‘양승호의 생태예술’ 도록은 뜨거운 관심을 끌었으며 프랑스 도예전문지 9/10월호에 소개됐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입주작가(Residence artists) 분야에 참여했던 발렌틴(Valentine Cotte)과 요시카즈(Yoshikazu Goulven Le Maitre)의



주변의 나무, 풀 등을 이용해 제작된 대형 조형물.

공동작업은 8월 27일 피날레에서 완성됐다.

주변의 나무, 풀 등을 이용해 제작된 대형 조형물은 프랑스 나오리정원에 설치되어 있고, 1년간의 숙성과정(서로 다른 재료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을 거친 후 내년 여름 행사기간 중 조형물 표면에 흙을 바른 후에 조형물을 둘러싼 임시가마를 만들어서 통째로 굽는 과정이 올해 행사진행 중 계획된다. 실험적인 이 프로젝트에 미리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에 워크숍에 참여했던 헤미(Remi Meunier)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뉜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나오리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도예기법에 관한 공부였을 뿐 아니라, 나 스스로의 자연성을 찾도록 인도해 주셨다. 내년에도 또다시 참여하고 싶으며 나 스스로를 찾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 엄마순찰대, 청소년 안전 지켜

### 매주 화·목 야간순찰 실시

**[당진]**엄마순찰대 당진시연합대 송악읍지대(대장 박미옥)가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엄마순찰대 송악읍지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화·목요일마다 야간순찰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당진송악로타리클럽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순찰에 나서고 있다. 10여명의 대원들은 기지시리에 위치한 공원과 빈집,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박미옥 대장은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등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대 제공

## 자살예방·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 위한 힐링 콘서트

### 11월 3일 도청 문예회관서

### 전문가 특강과 음악회 예정

충남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가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공식 행사명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친구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충남도와 굿모닝충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

공주병원 등이 주관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도지사 인사말, 기념 촬영에 이어,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의 2021년 충남지역 자살 통계 분석 및 추이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황 이사장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소설가 남인숙 작가의 마음치유 특강이 이어진다.

각종 방송활동을 통해 명성을 떨쳐온 남 작가는 11만 명의 구독자를 보

유한 인기 유튜브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과 밴드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한 풍성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충남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만든 행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든/deun127@korea.kr

## 내가 살아가는 이유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논산시 가야곡면 이순예 어르신**

개벽할 일이 내게도 생긴 거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증손녀 ‘서하’를 위해 한글도 모르던 이 늙은 할미가 시를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여?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6·25전쟁 등 무수한 생사의 고비를 겪으며,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 나는 어릴 적부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

그렇게 80년 평생을 정신없이 살다보니 자식들도 모두 잘 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그 고생스럽던 삶이 결코 고역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지.

논산행복대학을 다니며, 한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야말로 심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천지가

계다가 그 시로 상도 받고, 논산시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면장님 꽃다발도 받고 요즘 논산행복대학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참말로 감사하다 늦게 상복이 터졌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늦게 공부 부끄러워하고 공부 안시켰나 봐 호호호~



이순예 어르신  
논산시 가야곡면

# 예산서 '또 다른 삶의 가능성' 꿈꾼다

현영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올해 2월 노화리로 귀촌...  
자연, 마을, 생태를 주제로 한  
제1회 시산리마을영화제 열어



현영에 감독

**[예산]** "시산리 마을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이름만 집행위원장이지만 같이 만드는 영화제다. 하던 일들이 문화예술 쪽 일이었기 때문에 농촌에 가도 농사만 짓고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다. 충남 예산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영에(52)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전하는 '제1회 시산리 마을영화제'가 탄생한 배경이다. 점점 찾기 쉽지 않은 농촌 주민들과 영화감독이 영화제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는 사춘기 시절 반항심으로 누군가에게 매우 익숙한 기존 질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부호를 던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으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작품들의 주제가기도 한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몇 살에는 졸업하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는 삶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현 감독이 연출한 '남자, 화장을 하

다:I want Zero.G' 등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시산리영화제를 위해 고른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예산분들께겐 낯설 수 있겠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영화를 제공하고 싶었다. '다른 지역 마을들은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했다. 자연과 마을, 생태가 이번 영화제를 관통하는 주제다. 타지에 있는 분들도 시산리영화제를 통해 예산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는 성심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하고 독일에서 몇 년 다녀온 뒤, 영화아카데미에서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영화제작자의 길로 들어섰다.

"다큐를 처음엔 뉴스기사를 심층보도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어느날 우연히 TV를 보는데,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 그리고 촬영자의 해석, 의도, 이해에 따라 이야기가 언제나 전혀 달리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큐를 창작 예술 장르로 보게됐다"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시야를 넓힌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해 직접 마을과 공동체를 찾아가 경험하며 자신의 작품에 마을, 생태, 자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체와 마을들을 공부하다 보니,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람들이 만



현영에 감독이 연출한 작품들

들고자 했던 공동체는 기존 사회에선 실현하기 힘들니 자연스럽게 지역, 농촌, 지역으로 향해야 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생태, 환경에 대한 의식은 기본적으로 갖기 마련이다. 내가 생태적인 감각을 얻게 된 것도 이런 체험을 하고 부터다"

그는 서울이 고향이다. 3년 전 부모님 묘가 있는 '예산추모공원'을 왔다 가 밝은 분위기에 매료돼 올해 2월 응봉 노화리로 귀촌했다. 지난달까지는 녹색당 서울시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정치에 입문한 까닭은 영화의 단골주제로 삼는 생태주의를 녹색당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산리영화제는 같이 영화를 보고 감독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로 이뤄진다. 현 감독은 "다행히 감독들이 다 오겠다고 했다. 지인들 중에는 '예산이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 위로숲, 춘하추동 한로 절기산행 '즐거워'

청양 칠갑호 둘레길 곳곳  
24절기 이야기와 체험 가득



종착지인 칠갑뜨락에 모여 공연과 음식을 즐기는 참가자들.

**[청양]** 협동조합 위로숲(대표 배은주)이 마련한 '춘하추동 절기산행'이 참여자들로부터 반가움을 샀다.

지난 8일 오후 2시 대치면 광대리 청양구기자타운 입구에서 시작된 행사는 사전모집 인원을 훌쩍 넘는 150명이 신청·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위로숲은 '2022 충남 관광드라마를 육성 지원사업' 선정, 절기축제라는 주제로 칠갑호 둘레길 약 7km를 걸으며 즐기는 24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련했다.

또 걷다가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를 만나는 재미도 더했다. 쪽 염색 스카프 만들기, 슈링크스 열쇠고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나무사다리 타고 절기카드

뽑기, 버스킹, 칠갑호 이야기, 티테라피, 청양을 위한 인증샷(기후위기 피켓만들기, 환경부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는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칠갑호를 바라보며 즐기는 물명 시간과 종착지인 칠갑뜨락에 마련된 불명 시간은 참가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 종착지에 모인 참가자들은 떡볶이도 해먹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기관에서 마련한 공연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배은주 대표는 "2019년부터 24절기에 맞춰 청양의 곳곳을 걸으며 숨은 트레킹 코스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절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심신건강을 도모하는 청양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신문 제공

## 백종원과 함께 '글로벌 푸드 요리대회'

예산 식재료 5가지 이상 사용

**[예산]** 예산군은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주)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와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예산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예산 식재료 5가지 이상을 사용한 요리를 특별심사위원 5명, 현장 맛평가단 20명이 심사, 평가하는 등 기존의 요리대회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팀은 신성대학교로 상금 1000만원과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르코르프 블루 숙명 ▲세종대학교로 상금 각각 250만원과 NH농협중앙회상을, 금상은 ▲우송대학교 ▲해전대학교로 상금 각각 100만원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상을 수상했으며, 은상 7개팀에게는 각 20만원씩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번에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신성대학교는 '예산 통삼겹살 스팀 플레이트'를 경연작품으로 제출했으며, 이 요리는 예산 블루베리와 사과잼 등을 활용한 예산스타일의 통삼겹구이로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팀 대표 박호나 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제6회 삼국축제에서 열린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의 셰프 여러분이 우리 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군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사항을 더욱 챙겨내년도 제2회 대회에서는 더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전국 최고의 요리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제공



### 사서들의 서재

##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50명의 사람, 50개의 이야기. 의사와 환자로, 환자의 가족으로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 피프티 피플.

이 책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목소리를 가득 담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적 고민과 사회적 갈등, 그러나 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슬픔과 감동을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프티 피플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의 사연, 성소수자의 이야기, 층

간소음 문제, 싱크홀 추락사고 등 현실의 우리가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를 생생히 이야기하고 있다. 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만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MRI기사, 보안요원, 인포메이션 담당자, 해부학 기사, 임상시험 책임자, 공중보건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의 사연이 담겨있다. 여기에 응급실, 정신과, 외과 등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입체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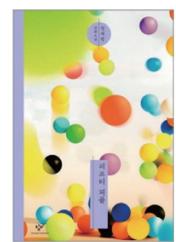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인물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처럼 구성되어 있고, 앞 소설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다음 소설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각 소설 간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며,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소설인 것이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고, 어떤 인연은 생각보다

빨리 잊히며, 어떤 인연은 의도치 않게 나의 평생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 모든 인연들이 이 책 한 권에 축약되어 있다. '가장 경멸하는 것도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소설 속 문장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치유 받고 사람들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서로가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서로를 잡아주며 천천히 그러나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며 사람에 대한 희망인 것이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윤소윤



《피프티 피플/정세랑/창비/2021》



# 도민 행복 위한 '선진 의정' 주춧돌 닦았다

제12대 의회, 출범 100일간

338회~340회 임시회 열어

도정 견제자 역할 본격화

예산 분석·심의 역량 강화

연구모임·정책위원회 통해

지역현안 심도 있는 대응

제12대 충남도의회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2대 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비전으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방향으로 세우고, 출범 후 100여 일간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치 다짐

12대 의회는 제338회 임시회를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협치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단은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 및 홍성현 제2부의장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장은 방한일 운영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 김기서 안

전건설소방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창용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희신 위원장이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원구성 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집중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출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급변하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정 이정표 제시 견제자 역할 본격화 원구성을 끝낸 12대 의회는 제339회, 제340회 임시회를 운영하며 도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본격화했다.

7월에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등 5분발언을 통해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5분발언의 전체 시간을 40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원장을 거쳤던 발언신청도 의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3건, 예산안 4건, 동의안 35건 등 84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미래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내포신도시 완성·인삼약 초산업 활성화·청년정책·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제341회 정례회가 열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 등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빈틈없는 의정활동 위한 역량 강화

의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온 충남도의회는 12대 의회에서도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례안 입안, 예·결산

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의정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농가 일손, 학교급식, 마을 교육공동체, 에너지 취약계층, 야구단, 의용소방대 등의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2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8건을 선정했으며,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에 힘쓰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개원에 맞춰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등을 발간했으며, 두 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11월에 있을 예산안 대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지역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12대 충남도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환위, 공무국외출장 실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방문

해외 의회 운영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9일부터 27일까지 독일·오스트리아·체코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이번 출장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외국의 선진 복지·환경 정책 우수사례를 찾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도정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정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일정은 ▲독일 연방의회 ▲펠트하임 신재생에너지 마을 ▲프라하 대중교통공사(DPP) 및 박물관 방문 ▲린츠 솔라시티(중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친환경 태양에너지 활용 주거단지) ▲푸거라이 마을(세계 최초 약자를 위한 사회공동주거시설) 방문 등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외교부 및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독일 연방의회 의원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세밀한 프로그램 및 일정 구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출장 이후에도 조례 제·개정, 정책 발굴,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활용·점검할 계획이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도민들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바라는 점과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충남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2분발언 및 조례안 의결 체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1일 예산 금오초등학교 학생 21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예산 금오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책을 깨끗이 쓰자', '쉬는

시간을 늘리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인터넷 사용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 교복입기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 공감하는 소통의정
- 변화하는 선진의정
- 실천하는 책임의정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 “도민 소득 창출 통한 충남도 발전 이뤄갈 터”



①기획경제위원회 - 윤기형 부위원장

지역별 특색사업 개발 통한 활성화 강조  
농민에게 효율적인 정책 수립 '앞장'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고 보니 막중한 책임과 무게에 두 어깨가 무겁다. 그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벌써 의정활동을 펼친 지 100일 여가 지났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과거 지역농협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나눈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해야 할 것은 많은 듯하나, 담당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의원, 행정과 협력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시군을 비롯해 지역구인 논산시 역시 지속적인 인구감소, 관광 경기침체와 농정의 부진, 일자리 문제로 지역 낙후가 심하다. 이는 곧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고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논산시는 인근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출산율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라는 현안에 당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색사업들이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충남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제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 싶다. 현재 농가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일하려는 이들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 가는데, 정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보완으로 농가 인력난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언제나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이해관계와 신념을 행정에 잘 반영해 나가겠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 및 독려자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만약 도의회가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존재의 필요성 역시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최일선에서 지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충남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 미치도록 일할 터”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고 맡겨준 동료 의원님과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 과거 군의원으로서 흥성군민을 위해 일해오는 등 기초의원 경험에 있기에 도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도의회 활동은 군의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군의원은 한 가정의 집안 살림을 견제하고 대안 제시를 해나가지만, 도의회는 15개 시군을 아울러 가며 도정을 견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기대에 응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활동하겠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포신도시 발전이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고

여긴다. 힘센 충남을 앞세운 민선 8기 도정은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를 발전시켜갈 것이며, 한 개의 권역으로 흥성·예산을 내포신도시 발전의 축으로 삼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정의 정책 기조와 지역구 의원으로 내포신도시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조하겠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만큼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내포로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자연히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 개선·구축이다.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젊은이들이 머무르려 할 것이고, 머무는 이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제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충남도과 지역대학이 상승해 갈 수 있는 지원 조례 마련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

이 성장해가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싶다. 지역구인 흥성은 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청운대와 혜전대가 없다면 인근 지자체와 크게 별다른 것이 없다. 젊은이들은 머무르려 하지 않고 초고령화된 현 상황에서, 대학을 성장시켜가는 것만큼 지역에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단은 없다고 여긴다.”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도의원이 되기 전 4년 동안 ‘다시 기회를 준다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라고 외치고 다녔다.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되돌아보고 있다. 또 정당의 거수시가 아닌 의원의 배지값을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48명의 도의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오로지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②행정문화위원회 - 이상근 부위원장

지역대학 지원조례 통한 지역 활성화  
정당 거수기 아닌 도민 위한 활동 다짐

## 의원시론

### 지역균형발전은 낡은 슬로건이 아니다



조길연 의장  
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우리나라 중앙집권체제의 역사는 600년이다. 아주 오랫동안 서울은 권력을 흡수했다. 불평 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행정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0년 전 지방선거 부활 후 지방분권·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전에는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분리해 세종시를 출범시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됐다. 하지만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정도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지방소멸’ 담론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의 소멸위험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급기야 정부는 극심한 인구 양극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에 10년간 1조

원씩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부문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지역 성장의 핵심이다. 반도체 등 전문인력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할 경우 지방대학의 위축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지역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에선 ‘지역균형 발전’을 글로벌경제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낡은 슬로건처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이 소멸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들이 대도시를 향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이기도 하지만,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당연히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낙후시키고, 인구감소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역이 사라진 글로벌경제는 없다.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제도들이 모색돼 왔고, 거기엔 성과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제도의 성과를 잘 따져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서천으로



전익현 의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 7월 26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4곳이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220만 충남 도민이 염원을 담고 충남도와 서천군의 주도적인 역할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충남과 전남·전북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거대하고 중요한 습지 보호구역이다.

8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충남의 갯벌은 그동안 우리 충남도민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서해안의 특별한 해양학적 조건과 기후 조건의 결합으로 펼쳐진 이 독특한 생태계는 중요한 식량자원을 주는 것은 물론,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와 융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천갯벌은 한국 갯벌의 고유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며 보존상태 또한 훌륭하다.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한 2000여 종의 독특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또한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중 한 곳이다.

정부는 5개 지자체로 흩어져 관리 중인 이러한 중요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활성화할 목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은 보전본부의 최적지다. 서천갯벌에서는 유부도와 금강하굿둑 철새도래지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이미 운영 중인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교육·문화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옛 장항제련소의 복원을 기치로 삼고 있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갯벌 국립공원도 충남도의 중점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다.

모든 계획이 완료되면 서천의 생태체험시설과 인접 시·군의 관광문화 기반 시설을 함께 묶는 서천·보령·태안의 해안벨트는 세계자연유산의 모범적인 활용사례로 세계에서 손꼽힐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

# 육사의 두 번째 심장이 뛰는다

**육사 충남이전,  
이제는 과감히 결단할 때입니다**

국방시너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1등 명문사관학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합니다

**육사 충남이전,  
첨단국방 백년대계의 시작입니다**

‘육사의 충남시대’가 곧 시작될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육사와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국방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